

주5일제와 공공도서관



강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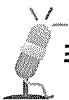


주5일제 시대의 시작

최근 우리나라도 주5일제가 우려와 기대 속에 점차 실시됨에 따라 공공도서관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듯하다. 주5일제는 1998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근로제도 개선을 제시하면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그 후 주5일 근무 실시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주5일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주5일제는 근로기준법 49조의 개정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휴일이 1주일에 2일이 됨을 의미한다. 작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목적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으며 더 나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이외의 여가를 늘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미 2002년 7월 은행들이 주5일제를 도입하였고 상당수의 기업체에도 노사간 합의로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특히 주5일제 근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행정기관들이 2005년 7월부터 모든 토요일을 휴무하기로 발표되어 이제 우리사회에 주5일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은 분명하게 되었다. 주5일제는 이미 프랑스의 경우 1936년에 유급휴가제와 함께 실시하였고 이웃 일본은 19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다가 1997년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중국도 1997년 5월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5일제는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예고

주5일제의 시행은 그만큼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우선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들은 많은 시간을 일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탐

*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hik115@nate.com

색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휴일에는 단지 쉬는다는 개념에서 자아실현과 재창조의 시간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과 업무개선에 노력하면서 근로시간 투입을 핵심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 결과 아웃소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으로 지탱하는 사업들은 해외로 이전되거나 혹은 중단, 매각될 것이다. 향후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업구조를 두뇌와 감성에 기반을 둔 하이테크 방향으로 변신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문화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업적에 따라 평가하는 성과주의가 정착되게 된다. 근로자 또한 휴일이 늘어나면서 생활수준이 낮아지지 않으려면 각자의 몸값과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제시되는데 주5일제 시행과 함께 근로자 개인학습을 지원할 평생학습 및 여가시설 같은 공공인프라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와 문화가 비슷한 일본은 1980년대 후반 국제사회가 경제 선진국인 일본의 장시간 근로를 비판하면서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주5일제의 여가시간을 보낼 공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본에서는 1990년대 장기불황과 더불어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멀리 놀러 가지 않고”, 돈을 쓰지 않는 패턴으로 변화되어 처음부터 일본정부가 의도한 소비진작, 산업활성화에 연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공공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936년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프랑스 경우는 대중 여가문화 성장을 위하여 예술보육시설, 유스호스텔 건립 등 근로자층의 여가와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근로자와 대중위주의 신문화정책으로 교육과 여가문화의 결합인 문화의 집 조성사업, 박물관 운동, 도서관 운동 등이 전개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관광산업 진흥에도 노력하였다.



공공인프라의 하나로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기능 요청

주5일제 시행으로 여가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초기에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노는 시간의 경향을 보이게 되지만 점차 자아실현과 재창조를 위한 여가선용의 경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오랜 시간 근로하는 것을 미덕으로 보는 풍조는 사라지게 되고 일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재충전과 자기개발의 여유를 갖는 사람이 일에만 허덕이는 인간보다 창조에 뛰어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시민들은 평생학습시설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재충전과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본래 사람들이 혼자 학습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평생학습의 핵심시설의 하나이다. 시민들은 집 근처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쉽게 접근하면서 필요한 자격, 면허를 취득하거나 경력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을 할 수도 있다.

공공도서관은 앞으로 주5일제 시행과 함께 이러한 개인의 학습필요에 대응하는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또 하나는 공공도서관이 커뮤니티 지향형의 여가선용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자칫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개인학습만 중심이 되면 지역공동체의식이 실종되기 쉽다. 가급적 많은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관에 와서 자

유롭게 오랜 시간을 체재하면서 사람들간의 만남의 공간이면서 컴퓨터의 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일본이 도시지역에 대형공공도서관을 속속 건립하여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 체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공공도서관 시스템정비에 관심을 가져야

공공도서관들은 이와 같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정작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경우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더구나 남들이 쉬는 토, 일요일 근무가 늘어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주5일 근무제가 일과 자녀양육을 함께 해야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생활균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공도서관 사서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이 토, 일요일 개관에 많은 어려움을 예상케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도 대부분 공공도서관에서 사서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2003년 통계를 보면 전국 462개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는 1,958명으로 도서관 1개관 당 평균인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공립공공도서관은 인구 32만명당 1개관으로 도서관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장서도 인구1인당 0.5권도 되지 않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또 운영면에서 보면 도서관의 상당공간이 시민들의 지식, 정보공간이기 보다는 아직도 학생이나 수험생들의 자습실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면 공공도서관은 주5일제시행에 대비하여 서비스면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분간 주5일제는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공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상황에서 금전소비형 여가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따라서 공공의 역할이 준비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자칫 여가를 보낼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요구로 이어져 새로운 노사갈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5일제와 함께 우선 공공도서관 수부터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공공도서관시스템 정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도서관 자료확충과 적정한 사서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탄력적인 방법으로 인력확보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사서외에도 2002년 1월 19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26조 2항의 근무시간단축임용 조항사례처럼 일정시간만 근무 가능한 시간제 정규공무원제를 도서관 사서채용에 반영한다는 가 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 같은 정책도 고려할만하다. 그리고 우선 공공도서관에 수험생들의 자습공간을 줄이고 자료, 정보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1일이면 기대와 우려 속에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나라가 된다. 그 결과 국민들은 과거보다 많은 여가를 가지게 된다. 여가시간을 단순히 관광이나 즐기는 시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의 선택이 2만불 소득시대로 가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